

목회자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권 혁 상(백석대학교 강사) · 강 기 정(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목회자 부부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목회자 부부를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 부부의 생태체계변인과 생활만족도의 수준과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생태체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조사 시기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이며, 조사대상과 방법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회의 1명 이상 자녀를 둔 남편이 목사인 목회자 부부를 유의표집하여 최종 452명(226쌍)을 대상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프로그램으로 신뢰도,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Pearson 적률상관계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 부부의 생태체계변인과 생활만족도 수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변인에서 남편의 연령은 평균 46세, 아내는 평균 44세이며, 교육수준은 남편이 대부분 대학원 이상이었으며, 아내는 대학교 졸업이 42%로 가장 많았다. 목회자 부부의 월 평균 소득은 217만원이며, 농촌(47%)과 도시에 절반 정도씩 거주하고 있었다. 목회자 부부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목회관련변인에서 교회규모는 50명 미만인 40.3%로 가장 많았다. 사회관련변인에서 사회적 지지의 지지망은 남편이 평균 2.71, 아내가 평균 2.31이었다. 이외의 변인 중 주관적 건강,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친밀감, 성생활만족도, 여가공유만족도, 소명감, 직업만족도, 사회적 지지의 접촉빈도와 기능인지,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모두 중간 수준 보다 높았으며, 부모역할스트레스는 중간 수준보다 낮았다.

둘째, 목회자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생태체계변인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모든 생태체계변인의 설명력은 55.1%이며, 직업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여가공유만족도, 사회적 지지의 접촉빈도, 기능인지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아내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모든 생태체계변인의 설명력은 58.5%이며, 남편처럼 직업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의 기능인지, 자아존중감, 여가공유만족도, 주관적 건강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복지 실천의 장이며 주체인 교회의 목회자 부부 대상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목회자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목회자 가정의 건강한 가정문화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